

**수요말씀묵상교재 #37 (2020년 12월 9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 **찬송가** - 104장(신, 104), 105장(신, 10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 **성경봉독** - 시편 102편 1~2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 **말씀 묵상 (변하지 않는 은혜)**
  1. 본 시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11절로, 시편기자가 지나가는 어려운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시편기자의 마음과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매우 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이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3절)에서 드러납니다. 냉과리는 “화로” 또는 “숯불”을 말합니다. 까맣게 타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한 좌절과 자괴를 맞보는 시간 속에 시편기자가 주저앉아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듯한 표현이 잇따릅니다. 바로,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라는 것이지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범죄하였거나 연약했던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2. 다른 하나는 12~22절로, 시편기자가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고통하는 시간을 지난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이 돌아가서 문제를 아뢰고 해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두 번 나오는 “궁핍”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과 “호의를 베푸심”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회복되려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과 호의를 베푸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기자를 투영하는 “시온”(13, 14, 16, 21절)을 회복하셔서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도 이 회복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 소망을 노래합니다.
  3. 마지막 하나는 23~28절로, 시편기자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와 실효성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옷 같이 낡아질 이 세상(천지)”과 다르게 “옷을 갈아입듯이”(26절) “불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통치하실 것”(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4.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죄가 그 이후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 “전가(轉嫁)”되어 온 인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죽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연약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실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호의를 베푸심”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 **은혜 묵상**
  1. 코로나19가 9개월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고통의 시간을 가중시키는 중에,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은 없으신지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
  2.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변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호의”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나눕시다!
  3. 우리가 지금 만나는 힘든 시간들은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불변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호의” 안에 함께 걸어갑시다!
-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